

돌이킬 수 없는 ‘혈관병’ 예방이 최선

의료 킬링

> 당뇨병병증 <

평소 허리 통증으로 허리에 주사 치료 및 발치를 자주 맞던 68세 당뇨환자 A 씨, 하루 전부터 38도가 넘는 고열,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로 내원했다. 요추부 MRI 검사 상 척추 주변 근육 및 신경에 고름이 팽창, 경막의 농양으로 진단됐다. 고름이 척추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근력이 저하된 것이다.

A씨는 고름 제거 수술 후 추가로 6주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퇴원할 수 없었다. A씨는 당뇨 환자였지만, 잦은 주사 치료 및 시술과 발침 등 민간요법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다. 침 치료나 민간요법 후 감염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당뇨 환자가 시술 후 감염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당뇨환자의 통증 치료에 대해 조선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김석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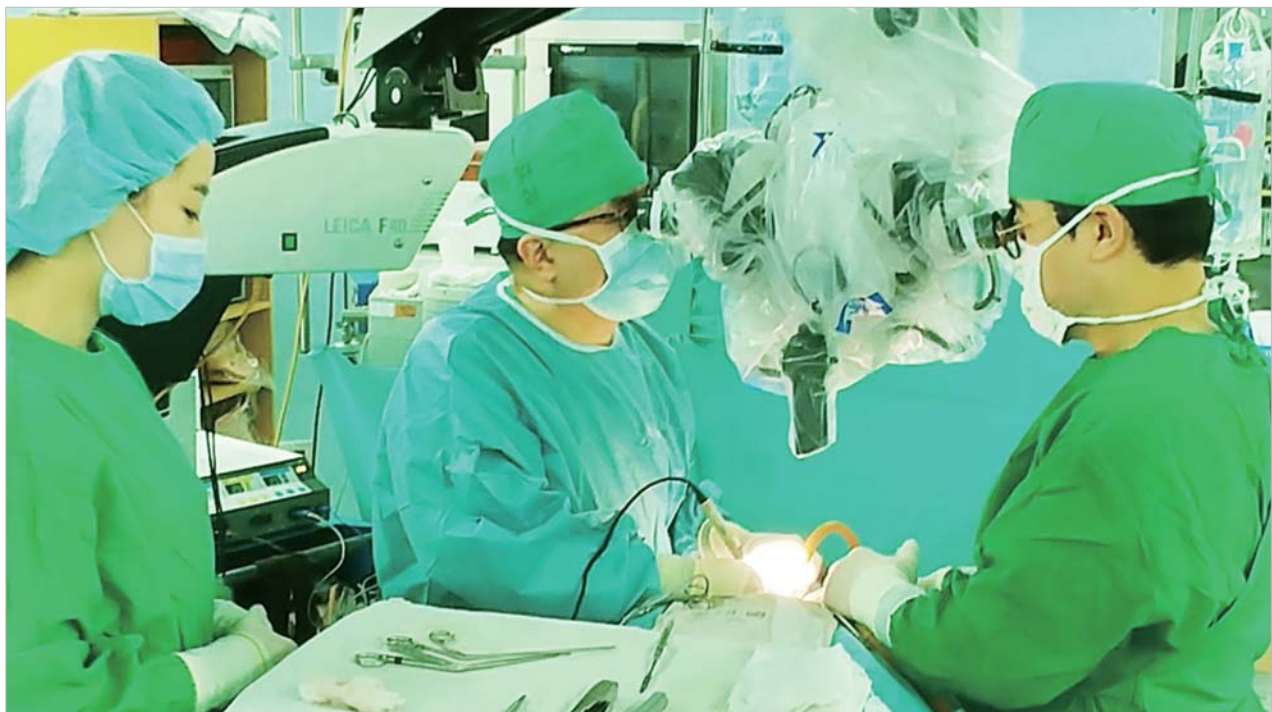
◇당뇨병, 신체 균형 무너뜨려

당뇨병이란 신체 내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혈당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는 주로 당뇨합병증이 더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당뇨합병증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려서 생기는 급성합병증과 유병기간이 오래돼서 생기는 만성 합병증으로 나뉜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된다.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의 다양한 크기의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3%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노인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체지방은 증가하지만 반대



김석원 조선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가 척추 주변 감염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한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병원 제공

통증 주사 등 침습적 의료 시술 감염 확산 우려 항생제 치료 어렵고 고혈당 쇼크 발생 위험 커 꾸준한 운동 병행해야...정기적인 검사 필수

로 근육량과 신체 활동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합병증 감염되면 ‘위험’

당뇨환자들이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침습적 의료 시술 및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근육 주사, 통증 유발점 주사, 신경 차단술,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체 성형술 및 풍선성형술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침 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침이나 주사 치료의 증가로, 시술 부위 감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또 이에 따른 입원 기간의 연장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 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로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당뇨환자는 세균 감염이 흔해 시술 후 이러한 감염이 더욱 잘 발생하게 된다. 염증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며, 상처 치유가 지연돼 주의해야 한다. 당뇨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질환의 특징으로는 감염 후 항생제 치료가 쉽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에 비해 악화 정도

가 더욱 심하다.

특히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을 망가뜨리는 동맥경화증이 오고, 어느 장기에 오는데 따라 전신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은 ‘혈관병’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합병증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번 생긴 합병증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김석원 교수는 “감염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혈당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경우 고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혈당이 높을수록 세균 증식이 촉진되며 세균에 대한 방어능력도 저하된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 피해야

당뇨환자에게서 인슐린과 항생제 치료로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감소됐지만, 철저한 혈당조절과 감염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당뇨환자라고 모든 시술을 시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꼭 필요한 시술은 척추 전문의와 충분한 진료 후 척추 전문가의 판단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극심하며, 통증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 전문의의 판단 하에 신경 차단술을 시술할 수 있다.

척추뼈의 압박골절로 인해 보행이 불

가능할 경우 척추 성형술 혹은 풍선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당뇨 환자에게 시술 전 혈당이 잘 조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좋으며,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혈당 조절을 해야 한다.

시술 시 모든 환자에게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료진은 균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더 세심한 무균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 통증 치료는 완치라는 개념보다 관리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주사치료보다는 식습관 개선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약물 치료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와 함께 혈당 조절하면서 합병증 예방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김석원
〈조선대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

밝은안과21 논문 국제 학술지 등재

BMC Ophthalmology 5월호...삼성서울병원 공동 연구

밝은안과21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과 함께 공동 연구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밝은안과21병원 최성호 원장, 윤길중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공동 연구한 논문 ‘각막지형도 기반 굴절 라식과 파면 최적화 라식, 현성굴절 기반의 각막지형도 라식의 결과 연구 비교’ 논문이 글로벌 안과 학술지인 BMC Ophthalmology 5월호에 등재됐다.

이 논문에서 밝은안과21병원 최성호 원장, 윤길중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공동 연구팀은 세 가지 라식 수술 방법으로 수술 환자의 근시와 난시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첫 번째 각막지형도 기반의 라식 수술인 기존 컨투라 비전은 각막지형도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각막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라식 수술이다. 두 번째 웨이브프론트 라식은 속도, 안전성,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100% 레이저 시력교정술이다.

마지막으로 밝은안과21병원이 개발한 컨투라 비전은 기존 컨투라 비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수술법이다. 특히 이 수술은 각막 지형도 검사와 현성굴절검사를 토대로 난시량과 축을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조정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



밝은안과21병원 최성호원장(왼쪽), 윤길중 원장

에 좀 더 균일한 각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컨투라 비전 라식을 받은 환자 85명, 웨이브프론트 라식을 받은 환자 70명, 밝은안과21병원에서 컨투라 라식을 받은 환자 40명, 총 195명의 수술 결과를 가지고 분석했다.

세 가지 라식 수술을 비교한 결과, 교정 시력에는 별 차이 없었지만 난시량은 다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밝은안과21병원에서 받은 컨투라 비전 환자들에 게서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밝은안과21병원에서 개발한 컨투라 비전은 기존 컨투라 비전보다 난시를 더 정밀하게 교정해 뛰어난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김영민 기자

초등생 대상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

광주·전남지역암센터, 오늘까지

광주·전남지역암센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전남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국민 암예방수칙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암 예방의 중요성과 ‘국민 암예방수칙’ 10가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응모요령은 광주전남지역 암센터 홈페이지(<http://www.cncucancercenter.com>)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작품 규격은 8절지(스케치북 크

기)나 4절지(스케치북 2배 크기)로 한정된다. 당선작은 내달 발표하며, 대상작 1편 30만원 등 총 6편을 뽑아 상금을 시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국민 암예방수칙’ 10가지는 금연하기, 건강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사, B형간염 예방접종 받기, 짜게나 탄 음식 먹지 않기, 안전한 성생활,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암 조기검진받기 등이다.

/김영민 기자

광주기독병원, 급성기뇌졸중 치료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기독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으로 201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며 장애발생률과 합병증으로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 전)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등 9개 평가지표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됐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앞으로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각종 급성기질환자 진료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대라수^經 는 고객의 요구를 앞서 생각하는 설계와 시공으로 공간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대라수건설(주)

